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곽 승 지 (연합뉴스)

◁ 목 차 ▷

- I. 서 론
- II. 김정일시대의 통치논리와 국가목표
- III.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
- IV.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 V. 결 론

I. 서 론

오늘날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김정일과 군(軍) 그리고 강성대국이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에 이어 98년 9월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김정일시대¹⁾를 맞이했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방식을 선군정치로 부르는 가운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노동

1) 김정일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이 당정군에 공식직위를 갖고 전반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소급하면 80년대 초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일성과 함께 통치 일선에 나선 때부터를 말할 수도 있다. 김일성은 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중앙방송, 2000.7.1, 정론). 이 글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를 김정일시대로 지칭하고자 한다.

당의 지도를 강조하지만 당의 위상은 현저히 위축되고 북한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과 동시에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서 김정일과 군 그리고 강성대국은 또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중심축이기도 하다. 김정일의 사상과 북한군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 및 사업방식, 그리고 김정일체제가 지향하는 국가전략으로서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북한이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주민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김정일사상으로 귀결된다. 김정일시대에 즈음하여 북한에서는 시차를 두고 붉은기사상과 군중시사상, 강계정신 그리고 과학중시사상 등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잇달아 제시됐는데²⁾ 이들이 모두 김정일사상³⁾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김정일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 생존시에도 있어왔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통치기반이 김일성에게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일의 독자성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데올로기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이데올로기의 강조는 당연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이 시대상황의 변화과정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통치논리와 함께 순차적으로 체계화됐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체제정당화 및 주민동원을 위해 북한당국의 의지에 따라 단계적으

2)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보다 새로이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이 강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컨대 97년 신년공동사설은 종래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를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자”로 바꾸어 표현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3) 북한은 99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온 사회를 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김정일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1999.1.1.

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서 대남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99년부터 대외부문에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던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북한의 변화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전략적 변화로 보려는 시각과 여전히 전술적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은 과거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 분명하다. 최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이끌어낸 것은 북한의 국가목표에 변화가 있음을 웅변한다. 최근 사상보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한 것은 북한에서의 변화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그들이 처한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양산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김정일사상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김정일시대의 시대상황, 통치논리 및 국가목표는 이데올로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의 변용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데올로기인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북한적 현상, 특히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 북한체제의 특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헤아려 볼 것이다. 북한적 현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시대가 처한 시대상황에 대해 북한 스스로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아울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내세워 왔는지를 일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목표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목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살펴

보려고 한다. 즉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북한의 상황 인식 및 통치논리 그리고 국가목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북한적 현상 속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먼저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순수 이데올로기(pure ideology)로 하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기능한다는 점을 검증할 것이다. 이는 프란츠 슈만(Franz Schurmann)이 중국에 적용했던 이데올로기 계서구조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⁴⁾ 그리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이 어떤 이념적 정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특히 김정일시대에 들어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의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논문은 최근 북한에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즉 북한의 변화를 인정할 경우 그러한 변화가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김정일시대가 출범한 이후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물론 주체사상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북한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여전히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내재적 관점에서 문헌분석(textual analysis) 방법을 통해 북한의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앞으로의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자료제공과 문제제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4) 이데올로기를 계서화 한 프란츠 슈만 (Franz Schurmann)의 논리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가 프란츠 슈만의 논리를 차용한 것은, 그러한 이론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슈만이 중국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계서화했던 시도가 북한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I. 김정일시대의 통치논리와 국가목표

1. 시대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야기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외교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체제위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우리사회주의론을 체계화하여 주민들에게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주입시켜 왔다. 체제적 측면에서 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불식시키려 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이 무렵부터 군 중심의 비상체제를 구축⁵⁾하는 한편 폐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비했다. 92년부터 핵문제를 빌미로 이른바 벵랑끝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통한 강경노선을 취한 것은 군사외교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맞서려는 북한당국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94년 6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주선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응함으로써 북한은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7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의 그러한 노력마저 일거에 앗아갔다. 49년 동안 북한을 유일적으로 지배해온 최고지도자의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련이 시작된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아가려던 북한의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려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에 둘러있던 정치적 불만이 표출⁶⁾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일탈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94년 우박피해로부터 시작된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식량배급마저 불가능해졌다. 북한당국의 식량배급을 통한 통제기능이 무력해졌을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사회적 공동화현상마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시

5) 이항구 등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91년 12월 초헌법적 조치로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한 것을 군사국가체제로의 전환으로 인식한다. Vantage Point, August 1998, Yonhap News Agency, pp. 8-10 참조.

6) 1997년 2월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 권부내의 이념적 갈등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의 상황을 30년대 말 김일성과 그 일행이 일본군에 쫓겨 100여일 동안 행군하던 것에 견주어 고난의 행군⁷⁾으로 묘사했다. 즉 당시 북한의 처지가 70여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시의 상황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한 것은 대략 95년 초부터이다. 이후 북한은 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며 전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은 98년부터는 고난의 행군 대신 주로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상황을 묘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감안할 때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0년대 이후 북한이 겪은 제반 어려움이 김일성사망과 함께 촉발됐으며⁸⁾ 최근까지 북한 언론매체에서 여전히 고난의 행군이 언급⁹⁾되고 있는데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은 경제난으로 인한 물질적 부족과 함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사상적 동요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극한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통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극한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행군에 대해 주로 언급하며 이를 위해 구보행군이라는 보조 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어 낙원의 행군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했다. 즉 전체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나아

7)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은 북한에서 세 번째로 행해진 것이다. 첫 번째는 김일성과 그 일행이 38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중국 몽강현 남파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까지 일본군을 피해 행군한 것이고 두 번째는 56년 8월 중파사건을 전후한 시기의 어려움을 일컫는다.

8) 붉은기사상이 처음으로 제기된 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들자”를 통해 북한은 세계정치사나 공산주의운동사에서 모든 변화와 우여곡절이 수령의 서거로부터 기인했음을 지적, 북한 역시 김일성 사망으로 어려움이 시작됐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9) 『로동신문』은 당창건 55주년을 “위대한 김정일동지 따라 역사의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낸 승리자들의 긍지높은 축전”으로 표현했다. 사실, “조선로동당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로동신문』, 2000.10.10.

가서 사회주의 강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구보로 행군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체제정비를 도모하고자 했다.

2. 통치논리

북한은 김일성 사망직후 당면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인고와 내핍을 강요하면서 그 논리를 사회주의 3대진지론에서 구했다. 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붉은기사상과 함께 언급된 이 논리는 정치사상진지, 경제진지, 군사진지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⁰⁾ 사회주의 3대진지론은 일견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전을 연상시키지만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들을 분야별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 3대진지론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제시했는데 이후 제시된 강계정신과도 연계시켜 왔다. 즉 북한은 “강계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¹¹⁾ 강계정신이 사회주의 3대진지론의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는데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3대진지론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통치논리인 셈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되고 김정일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98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3대진지론 대신 새로이 강성대국론을 제시했다. 강성대국론은 97년부터 그 아이디어가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소개되다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을 앞둔 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정론을 통해 체계화됐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건설론은 김정일체제가 지향할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회주의 3대진지론이 당면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야 할 중점부문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 강성대국 건설론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에

10) 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1996.1.1.

11) 공동논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6.1.

즈음해 이 체제가 지향할 목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고난의 행군을 통해 내핍과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온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즉 사회주의 3대진지론에서는 내핍과 인고를 통해 당면한 최악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강성대국론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 그리고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실현되었거나 실현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2000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동론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동론에서 과학기술이 특별히 강조되면서 과학중시사상이 제시된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10월 7일에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 3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새삼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¹²⁾ 이는 북한이 군부를 포함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건설에 매달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제시한 통치논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주의 3대진지론과 강성대국론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동론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됐을 뿐 아니라 공히 사상, 군사, 경제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통치논리의 제시과정은 북한이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이후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치밀하게 대응해 왔음을 의미한다. 3대진지론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였다면 강성대국론은 고난을 뚫고 나와 김정일체제를 공식 출범 시킴에 따라 김정일체제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 3대기동론은 경제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위한 개혁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한 변화의 몸짓으로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보다

12) 조선중앙방송, 2000.10.7.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들은 새로운 논리가 제시됐다고 해서 그 생명이 다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 각각의 논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계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사회주의 3대진지론의 정치사상진지와 연관시키는 것이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기둥론이 강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강성대국 건설론이 북한의 국가전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3. 국가목표

1) 김정일시대 이전의 경우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국가목표는 대체로 2단계로 나누어 설정된다. 유토피아인 공산사회(무산계급사회)를 목표문화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위한 중간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 최종목표로 무계급사회인 공산사회를, 중간목표로 전인민의 노동계급화와 공업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¹⁴⁾ 노동계급화는 인간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공업화는 사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레닌이후 이들은 “혁명과 건설”로 불리어왔다.¹⁵⁾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란 구시대의 잔재를 척결하고 전체 주민의 사상을 개조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적 인간을 주조함으로써 공산사회 건설을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13)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미 70년대에 제시된 3대혁명에 대한 주장도 사상, 문화, 기술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90년대 중반에 제시된 통치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이 제시한 통치논리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4)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공산주의국가에서 목표문화(순수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한 전이문화(실천이데올로기)의 목표(중간목표)는 지도자들이 전인민의 노동계급화와 같은 목표문화의 필수물(requirements)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공업화와 같은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8.

15) 이명남, “정치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5년, pp. 69-70.

건설이란 공업화 또는 경제발전 등과 같이 공산사회 건설에 적합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북한 역시 이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 국가목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목표는 북한의 특수성-주체사상의 순수이데올로기화와 민족통일 지향-을 반영해 여타 공산주의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은 국가의 최종목표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표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¹⁶⁾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¹⁷⁾

북한에 있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와 자연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는 북한의 과도기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산주의건설 과정, 즉 역사발전과정의 사회주의 종국적 승리단계로서 공산사회를 말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종국적 승리단계에 이르면 과도기가 끝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와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없게 되어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복구의 위협까지도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한다.¹⁸⁾

북한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사회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국가목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공산사회가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춘 유토피아를 의미한다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즉 인간의 도덕 윤리문제를 중시하는 일종의

16) 김일성,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91.

17)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교훈,”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08.

18)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53.

“도덕적·윤리적 공동체”¹⁹⁾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혁명과 건설을 주체사상에 입각해 “우리의 념원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 수 있다”²⁰⁾고 말한다.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라는 중간목표를 설정해 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및 노동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는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 되어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완성된 사회주의 사회”²¹⁾로서 내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가 남북통일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즉 내부로부터의 자본주의 복구위험이 사라진 상태란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되어 남한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험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중간목표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가 남조선혁명이 완수된 시점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²²⁾

2) 김정일시대의 경우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규범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국가목표가 변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시대의 시대상황과 최근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등 현실적응 행태를 보면 북한의 국가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²³⁾ 김정일시대 이전의

19)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49.

20) 김일성,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 『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 158.

21) 김일성,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501.

22) 김정일도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와 조국통일 실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김정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근로자』 1988년 제11호, p. 9.

23) 이 문제는 최근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 변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술적 변화로 볼

경우 북한은 국가의 최종목표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중간목표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추구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간목표가 남북분단이라는 북한이 처한 특수성을 반영해 남한의 공산화 전략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일단 최종목표의 변화여부는 차치하고 중간목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종목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목표 중 중간목표의 변화 여부는, 규범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조선혁명전략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상황적 여건의 변화를 파악하는 간접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그동안 이에 주력해 왔다. 즉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은 3대혁명역량의 강화를 토대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민주화 도미노현상을 통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세계적으로 탈이데올로기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이제 북한이 추구했던 3대혁명역량 강화 노력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경제난과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이탈현상의 심화로 북한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남한사회의 민주화로 남한내 친북세력을 부식하기도 힘들게 됐다. 그리고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지향하는 세계화 경향속에서 북한의 혁명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3대혁명역량을 강화하여 남조선혁명을 추진하려는 전략은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이러한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취해왔다. 91년 줄기차게 유지해온 ‘하나의 조선’ 정책을 접고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²⁴⁾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

것이나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북한의 최근의 변화를 전략적 변화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의 변화가 전략적 변화임을 뒷받침할만한 규범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지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김정일시대의 국가목표가 변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에서의 국가목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24) 북한은 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에 응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조선정책의 포기가 아

구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적극적인 다변화 외교를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코자 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시대에 즈음해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목표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국가목표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할 징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남한의 실체에 대한 인정, ②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유연한 태도, ③ 노동당규약의 남조선혁명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가능성 시사, ④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의지, ⑤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다변화 외교, 그리고 ⑥ 시대상황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 등이다.

그러면 북한의 새로운 국가목표는 무엇일까. 필자는 북한의 중간목표, 즉 당면목표를 김정일체제의 유지와 경제건설로 설정하고자 한다.²⁵⁾ 이러한 입장은 두가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 부단히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을 추구해 왔다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강성대국론에 담겨있는 의미와 관련된다. 라카토스(Imre Lakatos)의 논리²⁶⁾를 강성대국론에 적용하면 강성대국의 세가지 구성부분 중에서 정치사상강국이 핵심(hard core)이고 군사강국 및 경제강국은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대(protective belt)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여기

나라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25) 통일연구원의 홍용표 연구위원은 탈냉전이후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최우선 국가목표를 체제의 생존으로 보고 이를 대내외적 안보위기의 탈피를 위한 안보문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홍용표,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000년 8월 28일 개최된 통일연구원 주최의 제 38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 3.

26) 라카토스(Imre Lakatos)는 모든 논리 속에는 핵심부분과 주변부분이 존재하며 핵심부분은 이론의 기본개념을 형성하고 주변부분은 핵심부분을 보호하는 보호대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오명호, 『현대정치학이론』 (서울: 박영사, 1994), pp. 58-62 참조.

서 정치사상강국은 결국 주체사상 및 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된 김정일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호대로서 경제강국 건설은 말그대로 경제건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Ⅲ.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

1. 붉은기사상²⁸⁾

북한에서 붉은기사상이라는 표현이 구체화된 것은 96년 1월 신년공동사설에서부터 이다. 95년 중반부터 붉은기에 대한 상징성을 차용하여 이데올로기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붉은기철학, 붉은기정신 등이 어우러져 사용²⁹⁾되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야 붉은기사상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붉은기사상의 체계화도 96년 신년공동사설과 같은 해 1월 9일자 『로동신문』논설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듬어졌다. 96년 신년공동사설에는 붉은기사상과 함께 고난의 행군에 대한 필요성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리로서 사회주의 3대진지론이 함께 강조됐다. 이는 붉은기사상이 고난의 행군 및 사회주의 3대진지론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붉은기사상은 이론적인 면에서 주체의 혁명철학,

2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곽승지, “김정일체제의 21세기 국가전략: 강성대국 건설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년, pp. 55-62 참조.

28) 붉은기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다. 곽승지, “북한의 붉은기사상과 그 실천이데올로기적 성격,” 『통일경제』 1997년 5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 50-65;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월2호(1999년), 통일연구원, pp. 37-59;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권력체계: ‘붉은기사상’과 당·정·군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9) 붉은기사상을 내오기 위해 이 무렵 붉은기의 상징성을 강조한 것으로는 『로동신문』의 95년 8월 28일자에 실린 정론과 9월 30일자 1면 상단에 실린 혁명가요 “높이들자 붉은기”의 악보와 가사 등을 들 수 있다.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그리고 신념의 철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⁰⁾ 주체의 혁명철학이란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이념적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붉은기사상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 철학”³¹⁾이라고 언급, 붉은기사상과 주체사상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은 붉은기사상이 지향하는 행동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혁명은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의 위력에 의해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단결은 천하지 대본”이며 “단결보다 더 강력한 혁명무기는 없다”는 주장³²⁾에서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심단결이 지향하는 목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군·인민간에 혼연일체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통한 단결과 통일을 강조하는 가운데 “붉은기사상은 평도자와 전사, 평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지향도 하나, 리상과 포부도 하나, 감정과 정서도 하나인 혼연일체를 실현하게 한다”³³⁾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신념의 철학은 붉은기가 혁명에 대한 신념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하는 사람이 견지하여야 할 규범과 관련된 것으로서 체제고수를 위한 논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붉은기를 든다는 것은 한번 다진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혁명가는 투쟁의 첫걸음도 붉은기 앞에서 다진 맹세로부터 시작하며 인생의 진행로에서 그 맹세를 지켜 싸우게 되며 한생의 총화도 붉은기 앞에서 짓게 된다”고 말한다.³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신념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붉은기사상의 이러한 이념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을 하위개념으로 제시한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난의 행군으로 불렀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혁명선대들의 정신을 따라 배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은

30)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31) 위의 신문.

32) 위의 신문.

33) 위의 신문.

34) 위의 신문.

일심단결의 철학과 신념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영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³⁵⁾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의 제일 체현자이며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전위 투사이다.”³⁶⁾

이상에서 보듯이 붉은기사상은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논리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이 사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사상의식을 최대한 높여 사상의 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붉은기사상은 수령중심사상이며 붉은기사상의 의미와 내용은 혁명적 수령관에 귀착된다”고 규정³⁷⁾하고 있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붉은기사상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귀착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은 붉은기사상이 내용면에서 김정일체제의 고수를 위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구조면에서 주체사상의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는 하위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군중시사상

북한에서 군의 중요성은 항시 강조되어 왔지만 이러한 강조가 이데올로기화된 것은 김정일시대에 들어와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던 98년 무렵부터이다. 이 시기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 하면서 새로이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 때이다. 98년 4월 군창건일에 즈음해 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군중시사상이 언급³⁸⁾되고 이어 선군혁명영도, 선군정치(98.10.20), 선군후로의 정치방식(99.4)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99년 6월 16일 김

35)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1.1.

36) “모두 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1996.10.18.

37)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1), pp. 15-16.

38) 『로동신문』, 1998.4.25.

정일의 당사업 35주년을 앞두고 『로동신문』과 『근로자』공동논설 형식을 통해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공표됐다.³⁹⁾ 오늘날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중시사상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그 범주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 역시 군중시사상의 범주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북한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은 두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군대의 중요성은 단순히 체제안보의 보루로서 군의 역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군은 경제건설의 핵심적인 추동력일 뿐 아니라 사상전선의 보루이다. 즉 군대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철저한 사업방식이 당면한 경제건설에 있어서 유용할 뿐 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또한 주민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로부터 비롯된다. 북한군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는 이미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김정일은 94년 12월 당간부들과 행한 한 담화에서 “인민군대 간부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내가 명령만 내리면 결사전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나는 군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⁴¹⁾ 또한 그는 96년 12월 김일성대학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당간부들을 질책하면서 군을 본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⁴²⁾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통치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선군정치 방식을 김정일의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이 지난 시기 사회주의 본성에 맞는 완성된 정치방식을 모색해 왔으나 그것이 북한에 의해 “빛나게

39) 『로동신문』, 1999.6.16.

40)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인간이 ‘유기적 이데올로기’(세계관)를 통해 모든 형태의 의식을 획득한다면서 이러한 유기적 이데올로기가 특정사회 블록의 세계관이라면 이는 또한 모든 형태의 의식이 반드시 정치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그는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동일시한다. 원유철 편, 그람시의 마르크스주의와 헤게모니론(서울: 한울, 1991), pp. 102-105.

41)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평양방송, 2000.2.13; 연합뉴스, 2000.2.21.

42) 월간 『조선』, 1998년 4월호 참조.

해결됐다"고 주장⁴³⁾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직을 김일성에게 부여해 상징화하는 대신 국방위원장을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로 하는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이러한 북한의 통치기제는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은 98년 1월 자강도 현지지도에 나서기 전까지 군부대만을 시찰하는 등 군에 대한 편향된 관심을 보여왔었다. 따라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통치기제 및 김정일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원장을 최고통치자로 하는 현재의 국가체제가 선군정치에 따른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현재의 통치체제를 "군사중시의 국가기구체제"로 부르는 가운데 이 체제를 "가장 우월한 우리식의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⁴⁵⁾으로 설명한다. 즉 군의 혁명정신과 조직력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군과 인민으로 나누어 이들을 양대축으로 하는 사회로 인식한다. 즉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드는 주춧돌이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2대역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군정치가 결코 군대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중심에 놓고 구사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치"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북한은 군대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⁶⁾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강조는 강성대국 건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첫째, 정치사상강국 건설과 직결되는 군의 투철한 사상의식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관련된다. 수령에 대한 군의 충실성은 군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주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으로 발전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구도를 제국주의와의 대립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

43)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6.16.

44) 이와 관련해 북한은 심지어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통솔 지휘할 수 있게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강화된 것은 조국의 밝은 전도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위의 신문.

45)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6.16.

46) 위의 신문.

해서는 사상적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성이 강하고 사상적 신념이 투철한 전위 부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담당자가 바로 군대라고 주장한다.⁴⁷⁾ 따라서 군대를 먼저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체 주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 때 “사상진지가 금성철벽으로 다져질 수 있다”⁴⁸⁾고 말한다. 둘째, 군사강국 건설을 위한 안보의 보루로서 군의 역할이다. 즉 선군정치를 통해 군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의 힘을 과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체제안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정치에서 군사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정세가 긴장하면 군사를 강화하다가도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를 약화시키며 사회경제적 과업이 전면에 나서면 국방을 쫓겨버리는 일이 사회주의정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⁴⁹⁾ 즉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스릴 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⁵⁰⁾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군의 사업태도 및 방식과 관련된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만 유력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면서 이것이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선군정치가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치”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⁵¹⁾

북한은 선군정치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체 주민들이 군대내에서 창조되고 있는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그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은 군대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정신이 사회에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민 혼연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⁵²⁾ “군민의

47) 위의 신문.

48) 위의 신문.

49) 위의 신문.

50) 위의 신문.

51) 위의 신문.

52) 북한은 혼연일체가 궁극적으로는 영도자와 인민간의 혼연일체여야 한다면서 “영도

혼연일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초이고 사회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활력소”⁵³⁾라는 것이다.

3. 강계정신⁵⁴⁾

강계정신은 98년 1월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이후 처음으로 강계지역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해 2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계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에서 보여준 모범적 사례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곧이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시대정신 등으로 강조되면서 이데올로기화됐다. 특히 2000년 4월 『로동신문』과 『근로자』가 “강계정신으로 역세계 싸워나가자,” 제하의 공동논설을 통해 강계정신을 “주체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전체주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 정신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김정일시대의 중심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강계정신이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격상된 것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 사실을 통한 주민동원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고 낙원을 향한 구보행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을 일사분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시대정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99년부터 이른바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결속하고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기준이 필요했다.

자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인민은 영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라고 말함으로써 혼연일체가 결국 체제보위 논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9.2.16.

53)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6.16.

54) 강계정신을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갖는 의미를 여타의 다른 ‘정신’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등 정신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하위담론들과는 달리 강계정신은 그 자체로 주민동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즉 주체사상과 붉은기사상도 사상이라는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계정신은 50년대 말 제2차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한 후 시작된 천리마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천리마정신'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강계정신은 실제적 사실을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이데올로기화 했다는 점에서 여타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강계정신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심분 활용, 주민설득 및 동원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강도사람들이 고난의 행군기간에 풀뿌리와 나무껍질, 강냉이대와 벼뿌리를 먹으면서도 자기 혁명초소(생산초소)를 지키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했다는 등 극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강계정신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신을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⁵⁾

북한은 강계정신에 대해 “죽음도 두려워 않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정신이 맥박치고 있다”고 언급, 강계정신이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강계정신으로 싸운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심장 깊이 체득하였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어떤 요행수가 아니라 강의한 난관극복의 정신, 강계정신”이라고 강조한다. 강계정신이 “하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강계정신이 사상진지를 강화하는 것과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강계정신에 “열화와 같은 수령 승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관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군정치에 의해 창조된 “불패의 혁명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강계정신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결실로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이라는 주장이다.⁵⁶⁾

55) 공동논설, “강계정신으로 억세계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2000.4.22.

56) 위의 신문.

4. 과학중시사상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불과 20여일도 채 되지 않은 7월 4일 북한은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을 통해 과학중시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⁵⁷⁾ 이 공동논설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실사구시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에도 자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했었다. 북한의 이러한 관심은 99년 들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론을 제시하는 등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형태로 구체화됐다. 과학중시사상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기둥론에 입각해 과학기술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한 것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강행군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난의 해소가 지난한 일임을 인식한 것이다. 즉 강성대국의 마지막 관문인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외화난으로 인해 선진문물의 도입이 사실상 단절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과학중시사상이 당창건 55주년에 즈음해 고난의 행군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을 이루려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북한의 절박한 심정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과학중시사상이 체제고수 및 강화를 위한 이념이 아니라 개방을 통한 실리추구에 초점을 맞춘 전혀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붉은기사상이나 군사중시사상은 기본적으로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사상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데올로기의 지형상 좌(左)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중시사상은 이념 대신 실리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57)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2000.7.4.

있다는 점에서 우(右) 편향적이다. 즉 과학중시사상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됐던 이데올로기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전향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은 7월 4일자 공동논설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공동논설은 노동당을 “과학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당”으로 규정하고 과학중시사상을 노동당이 “현시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강조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⁵⁸⁾ 이 논설은 이어 “과학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를 적극 배우고 그것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⁹⁾ 북한은 또한 공동논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혁명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고 언급,⁶⁰⁾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한 것이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비공식 중국방문시 김정일이 보여준 언행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김정일은 중국방문시 중국측지도자들에게 “등소평이 옳았다”면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중국의 실리곤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을 방문, 현대 첨단 과학기술을 현장에서 목격했다.⁶¹⁾

과학중시사상은 내용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가장 취약하다. 어쩌면 단지 과학입국을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굳이 사상으로 표현한 것은 획기적인 정책 전환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했기 때문일 게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김정일과 당의 의지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의 절박함에서 구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려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이라

58) 위의 신문.

59) 위의 신문.

60) 위의 신문.

61) 7월 4일 공동논설의 의미를 등소평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비교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Kwak Seung-ji, "Apparent Signs of Economic Policy Turn," *Vantage Point*, September 2000, Seoul, Yonhap News Agency, pp. 2-7.

고 김정일이 언급했음을 강조하거나 “현시대에서 과학기술은 민족의 흥망 성쇠의 분수령이 된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학중시사상을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철저한 과학선행사상”으로 주장하며 이 노선에는 “붉은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혁명철학이 있고.....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담겨져 있다”고 말함으로써⁶²⁾ 이것이 단순한 구호 이상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다.

IV.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1. 북한의 이데올로기 구조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행위의 지침”(guide to action)으로서 관제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들은 당과 국가에 의해 채택된 이데올로기를 전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국가의 전체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전체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신념체계로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게 되고 이 이데올로기는 당과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면서도 각 국가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와같이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이데올로기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이데올로기간에도 필연적으로 위계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의 위계적 구조와 관련해 Franz Schurmann은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와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구분, 중국의 경우에 적용했다.⁶³⁾ 그는 중국에서의 이데올

62) 위의 신문.

63)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참조.

로기의 위계구조에 대해 맑스-레닌주의를 상위개념인 순수이데올로기로, 모택동사상을 하위개념인 실천이데올로기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즉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문화인 순수이데올로기라면 모택동사상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전이문화인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것이다.⁶⁴⁾ 실제로 사회주의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실천이데올로기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위계구조론은 북한에도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맑스-레닌주의가 순수이데올로기이고 주체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 위계구조를 이와같은 일반론과는 다르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한데 이어 1998년 9월 김일성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에서마저 주체사상을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지도이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⁵⁾ 둘째,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를 탈스탈린식 사회주의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⁶⁶⁾ 즉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체제라고 한다면 그 체제의 순수이데올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체사상을 북한의 순수이데올로기로 한다면 실천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⁶⁷⁾ 필자는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면 북한의 이

64) *Ibid.*, pp. 21-22.

65) 그러나 규범적인 면과는 달리 실제로는 북한사회에 맑스-레닌주의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발표한 자신의 논문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무엇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겠습니까”라고 언급, 북한이 맑스-레닌주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66)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체제를 신정체제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상우 전현준을 들 수 있다.

67) 최근 국내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데올로기 구조를 슈만의 입장에 따라 계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하면서도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주체사상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순수이데올로기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제한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체사상을 광의의 주체사상과 협의의 주체사상으로 나누어 이해하면서 주체의 사상을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하고 그 외의 주체사상 즉, 주체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80년대 중반이후 새로이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사회정치적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을 주체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자 한다.⁶⁸⁾

2. 김정일시대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데올로기적 성격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를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사상과 이론 그리고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도 일치된다.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즉 주체사상이 사상, 이론,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가운데 방법에 특별히 주목한다. “령도방법은 혁명투쟁에서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면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과 그 앞길을 밝혀준다면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⁶⁹⁾ 그리고 “사상 리론을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결합시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령도방법에 달려 있다”며 영도방법이 “혁명투쟁에서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⁷⁰⁾

그러나 실천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68) 80년대 중반이후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도 기실 주체의 이론과 방법, 특히 방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69) 한석진, “령도방법을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중요한 공적,” 『철학연구』 1998년 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p. 9.

70) 위의 책.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처한 상황이 변할 경우 이에 적합한 새로운 영도방법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주체의 사상 및 이론을 주민들과 결합시키기 위해 제시된 실천적 영도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붉은기사상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원칙이 투철하게 구현되어 있다”면서 “붉은기사상의 의미와 내용은 혁명적 수령관에 귀착된다”고 말한 것⁷¹⁾ 역시 붉은기사상을 주체사상의 변용이라기 보다는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도방법의 차원에서 제시된 실천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을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대사상전,” “패배주의, 비판주의,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불사르고 온 나라에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기상이 차 넘치게 하기 위한 혁명적 공세”⁷²⁾라고 주장한 것도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붉은기사상을 행동준칙으로 삼아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⁷³⁾

붉은기사상을 주체사상의 변용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는 붉은기사상의 내용이 주민들의 행동준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고난의 행

71)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p. 15-18.

72)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1.1.

73) 따라서 “온 사회를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 하자”는 구호는 기존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하자”는 구호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후자는 이른바 북한사회를 공산주의사회로 건설하자는 것이며 전자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예컨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붉은기사상이라는 행동강령으로 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등은 모두 북한주민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실천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붉은기사상 이후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군중시사상이나 강계정신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행동지침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 계서구조를 주목할 때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순수이데올로기 없이는 실천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될 수 없고 실천이데올로기 없이는 순수이데올로기의 이념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하다.⁷⁴⁾ 즉 순수이데올로기를 인간에게 통일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획된 신념체제로, 실천이데올로기를 현실적으로 행동에 필요한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관념체제로 인식할 때 주체의 사상은 북한주민들의 세계관이며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김정일시대의 이념적 정향

김정일시대는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 시기로 표현하듯 내우외환의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한 시대상황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모든 통치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통치논리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목표도 예외는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사망직후 당시의 상황을 30년대 말 김일성이 행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견주면서 그러한 상황인식에 맞게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사회주의 3대진지론과 붉은기사상이 그러한 상황속에서 나온 것이다. 98년 무렵 고난의 행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은 당면한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아 고난의 행군 대신 사회주의 강행군을 강조하고 구보행군을 주장하는 가운데 강성대국론과 군중시사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는 당창건 55주년에 즈음해 고난의

74) Franz Schurmann, *op.cit.*, pp. 21-22.

행군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강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며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했다. 과학중시사상은 경제적 실리에 초점을 맞춘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강성대국 건설 3대기동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시대상황의 변화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북한의 통치행위가 상황적 여건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맞는 통치논리와 이데올로기를 내오게 하는 동인이 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붉은기사상을 비롯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주체사상보다 더 강조된 것이나, 국방위원회를 최고통치기구로 내세우며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정치방식으로 주장한 것, 그리고 강성대국론을 통해 새로운 국가목표를 제시한 것 등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통치논리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목표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2000년에 들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모습도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시대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북한의 국가목표의 변화 등이 결합되어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제시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모두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80년대 말 김정일주의가 공공연하게 언급됐던 것에 비추어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없는 김정일시대에 즈음한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에는 “은 사회를 김정일사상으로 일색화하자”는 구호마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의 영생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정일체제의 통치기반이 김일성에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무게중심이 점점 김정일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이러한 현상의 정치적 함의를 헤아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김정일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점을 헤아리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사상이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8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의 영향하에서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붉은 기사상의 기원이 김일성에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김정일사상으로 부

르고 있고,⁷⁵⁾ 선군정치를 김정일에 의해 확립된 획기적인 정치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며,⁷⁶⁾ 과학중시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김정일의 의지에서 취하고 있는 것⁷⁷⁾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김정일 사상의 성격을 헤아리는 것이다. 필자는 김정일사상이 김일성사상과는 달리 실천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사상을 “새로운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답을 준 창조적 사상리론”⁷⁸⁾으로 정의하거나 김정일사상의 내용을 실천적 내용에서 구하고 있는 것에서 뒷받침된다.⁷⁹⁾ 이렇게 볼 때 최근 북한이 “온 사회의 김정일사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9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온 사회의 붉은기사상화”를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온 사회의 김정일사상화”를 북한의 최종목표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구별하여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주체사상 해석을 프란츠 슈만의 이데올로기 위계구조론에 따를 경우, 협의의 의미로서 주체의 사상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주체의 이론과 방법(영도방법), 다시말해서 실천이데올로기는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도 부합된다.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실천이데올로기인 동시에 김정일사상으로 이해할 경우 과학중시사상이 기존의 이데올로기 패턴과는 다른 변화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동안 북한에 의해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상(紅: ideology)중심의 것들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 해석 역시

75)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1호, p. 15.

76)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pp. 17-20.

77) 『로동신문』, 2000.7.4; 리창근,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담보,” 『경제연구』 2000년 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pp. 9-11.

78) 장경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 『철학연구』 1995년 1호, p. 3.

79)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일사상의 핵심 내용으로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고수사상, 자력갱생사상이 핵을 이룬다”고 적고 있다. 『조선신보』, 1999.1.8

교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중시사상은 기술(專: expert)에 초점을 두고 북한사회에 변화의 기운을 북돋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이 규범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아직 불확실하지만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시대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가목표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체제변화 및 혁신을 도모하는 기능⁸⁰⁾을 한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또한 중국에서의 변화과정이 이러한 북한적 현상을 이해하는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덩 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4개노선의 견지⁸¹⁾를 통해 핵심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로 하고 주체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제시된 이데올로기들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면 주체사상이 북한에서의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이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최근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를 생산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수용한다면 북한에서 김정일사상의 강조는 북한의 이데올로기구조하에서 김정일의 통치자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중시사상의 제시는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체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0) 이명남, 앞의 논문, pp. 85-86.

81) 덩 샤오핑(鄧小平)은 79년 3월 '4개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른바 '4개기본원칙의 견지'를 제시, 중국에서의 경제개혁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4개 기본원칙의 견지'는 ① 사회주의 견지 ② 프롤레타리아독재 견지 ③ 공산당지도의 견지 ④ 맑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견지이다. 백병훈, 『중국식사회주의론』(서울: 동방도서, 1991), pp. 256-260 참조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시대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세계사적인 탈이데올로기시대에 북한이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양산한 것은 그들이 처한 엄혹한 시대상황에 기인한다. 이데올로기가 대체로 위기 및 긴장의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어온 통치논리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제시됐다. 이 또한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주민들을 통합하는 기능뿐 아니라 북한체제를 건설하고 변화를 추구하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체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발빠르게 새로운 통치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와같이 상황변화에 적응하며 주민통합 및 체제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를 주체사상의 변용담론으로 보기보다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살펴보았다. 즉 프란츠 슈만의 이데올로기 계서구조를 원용해 협의의 의미의 주체사상을 목표문화로서의 순수이데올로기로 하고 김정일시대에 제시된 이데올로기를 전이문화인 실천이데올로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영도방법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할 뿐 아니라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한 북한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됐다. 그리고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김정일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도 확인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인식할 경우 향후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내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과학중시사상이 제시된 것은 앞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도 북한에서의 변화가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의 북한에서의 정책변화를 감안할 때 그러한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